



작은 개천 모여 큰 강 이룬 대전광역시지회

회원 지킴이 나선 '독수리 5형제'

정만규 지회장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지부장이 모여 이뤄진 대전광역시지회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나서는 대전지역 제과업계의 독수리 5형제다. 지부의 자율권을 충분히 살리되 전체적인 방향은 지회가 이끄는 방식의 '풀뿌리 지회지부'가 대전광역시지회가 펼치는 사업의 기본 틀이다. 협회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광역시지회 '독수리 5형제'를 들여다 본다.

글 김미선 기자 · 사진 전문식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 '대전'에 가면 아수라 백작에 맞서 싸우며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가 더 이상 만화 속 얘기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수리 5형제를 진두지휘하는 김박사는 물론 1호부터 5호까지 개성 만점의 독수리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출격할 태세를 갖췄다. 독수리 5형제의 요새는 바로 대전이다.

'대전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공상과학의 한 장면일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독수리 5형제는 다름 아닌 (사)대한제과협회 대전광역시지회에서

활동 중인 지부장들이다.

대전광역시지회는 대전지역 제과업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만규 지회장과 대전 시내 각 구를 대표하는 5명의 지부장들로 이뤄져 있어 '김박사와 독수리 5형제'로 통한다. 인원 구성이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대전지역 제과업계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는 추진력과 단결력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무기 중의 무기다.

6년 동안 한 명도 변함 없는 드림팀

대전 제과업계에 대한 사랑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들이 뜻을 모아 한배를 탄 것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만규 지회장은 2번이나 연임을 거듭한 베테랑 지도자이고, 다섯 명의 지부장은 지회 전체의 뜻이 지역 곳곳에 퍼져 나갈 수 있게끔 나름의 작전을 펼치는 지회장의 핵심 참모들이다. 지난 6년 동안 한번도 '선수 교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그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쉽게 읽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지회는 다른 지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총무, 기술지도, 경영지도 등의 분과가 따로 없다.

“조직만 복잡하게 만들어두면 뭐합니까? 회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정만규 지회장은 지회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오히려 회원들의 실익과 거리가 먼 생색내기용 사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가 가진 나름의 지회 운영철학은 '풀뿌리 지회지부'로 요약된다. 지방자치체를 뜻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지회 운영을 바라본 것으로 각 지부의 자율권을 충분히 인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세심하게 배려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 지회가 하는 역할은 각 지회가 서로 다른 사업을 펼치면서도 대전지역 업계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확고히 하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역 속속 파고드는 고성능 레이더팀

정만규 지회장과 5명의 지부장들은 한 달에 한번 정기 이사회를 갖고 각 지역의 제과점 상황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다. 공동구매, 선행사업 등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지부를 통해 구체화된다. 요즘 들어 대전광역시지회 이사회에서 제일 자주 논의되는 문제는 업계의 무분별한 할인판매. 재료값이 쾡쾡 뛰어가뜰거나 어려운데 불경기로 떨어지는 매출 향상을 위해 제품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자영제과점 모두가 다 함께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이 대전광역시지회의 생각이

다. 자영제과점은 물론 프랜차이즈, 할인매장까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하려는 점포는 어느 곳이든 그들의 레이더를 피해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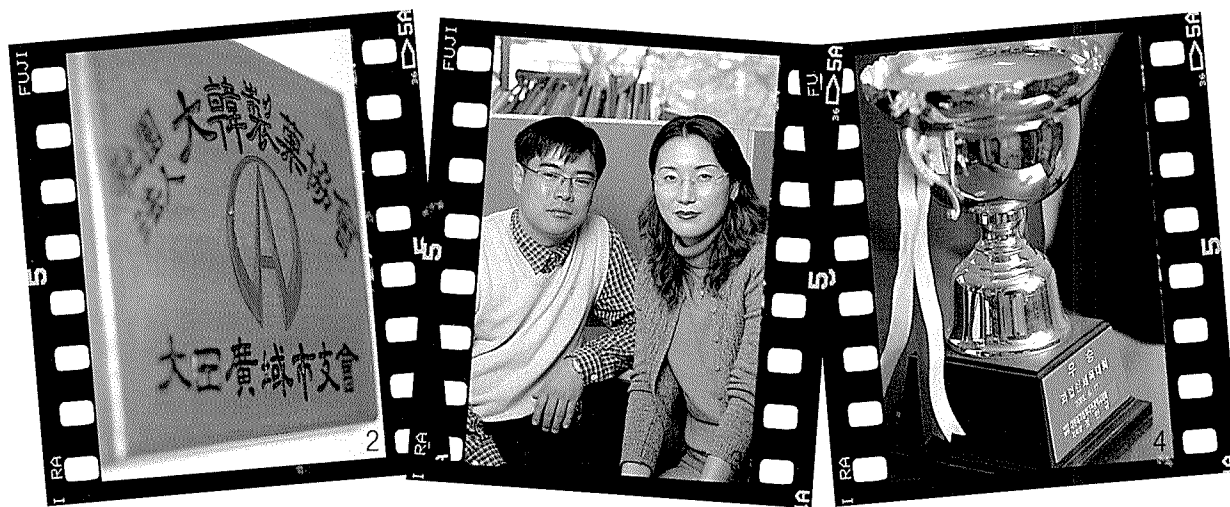
“점포의 자율적인 결정에 대해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설득시키죠.”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앞장선다는 박찬중 서구 지부장은 회원들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다짐한다. 원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선행이라지만 대전광역시지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지회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로 지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봉사활동은 구청장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의 공인을 받기도 했다. 따로 이익을 생각하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제과업계에 대한 주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사업에도 알게 모르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전광역시지회 사람들은 자부한다.

특히 유성구지부는 구청과 연계한 시설에서 회원들로 구성된 '제빵 봉사팀'이 한 달에 2번씩 직접 빵을 구워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장애인 학교 등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유성구지부의 '제빵 봉사팀'은 공중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이 앞 다퉈 취재할 정도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봉사활동, 공동구매, 가격비교 시스템

대전광역시지회는 앞으로 재료값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좋은 재료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버터, 견과류 등의 단가 높은 재료를 중심으로 지금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동구매 사업은 좀 더 다양한 품목을 다룰 수 있도록 힘 쏟고 있다. 또 지역 제과재료상의 가격표를 종합해서 한눈에 가격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 대전광역시지회의 독수리 5형제는 '지나온 길만큼이나 나아갈 길이 멀다'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다. 요즘 그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1 회원 지킴이 나선 독수리 5형제. 사진 왼쪽부터 박병선 중구 지부장, 정태천 유성구 지부장, 정만규 대전광역시지회장, 김대승 대덕구 지부장, 박찬중 서구 지부장. 강제복 동구 지부장은 개인 사정상 활영에 참가하지 못했다. 2 정만규 지회장은 해마다 조금씩 기금을 적립해나가 기술 세미나를 비롯해 회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펼치기 위한 터전이 될 지회 회관을 설립할 생각이다. 3 정래수 사무국장(사진 왼쪽)과 이원정 씨는 체계적인 일 처리로 전국에 소문난 지회 살림꾼이다. 4 대전광역시지회는 1년에 두 번 체육대회와 등반대회 등의 행사를 열어 회원단합을 꾀하고 있다.